

## 늘 푸른 충남의 모습을 기대하며...

‘충남환경운동연합’ 창립 축하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오늘 (7월 3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창립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출범하는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역환경 보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심으로써 21세기 충남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다섯 개의 지역 환경단체가 하나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회원 여러분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오존층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 자연보존연맹은 고등식물의 약 7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세계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로마클럽의 문제제기에 이어서 1972년 UN環境會議에서 인간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92년에는 리우선언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환경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이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각국의 공동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단위가 개인이며, 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충남환경연합에 도민과 각계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가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는 환경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세계 15개국 151개 지방정부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보도 개발이라는 신념으로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참게 등 어린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각지에 부레옥잠과 미나리짚을 설치하는 등 도민 환경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기업을 비롯한 도민의 환경의식 또한 개선될 점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오늘 창립된 충남환경운동연합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치 도정과 지역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창립으로 여러분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그 열매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 푸른 충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창립준비에 애쓰신 이명남 상임준비위원장님과 관계 인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남환경운동연합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